



말뿐인 각종 위원회 폐지·통폐합 추진

제주도, 올해 6월 유명무실 위원회 정비 작업 5월 355개→370개로 되레 늘어 특단 대책 절실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폐지·통폐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위원회 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난립하고 있는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등 실질적인 정비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370개(제주도 소속 307개, 제주시 32개, 서귀포시 31개)로 집계됐다.

제주도 위원회 증가 추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직후인 2006년 103개, 2010년 151개, 2015년 181개, 2020년 293개, 2021년 345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더욱이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법령 또는 조례 제·개정 등에 따른 유사·중복 위원회 신설로 위원회 중복 등 구성 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앞서 올해 6월 초 제주도는 각종 위원회의 유형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 정비 계획을 세운 이유로는 각종 위원회 중 지난해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고, 또 2회 미만으로 개최된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등 난립하고 있는 위원회의 정비가 요구됐기 때문이다.

당시 도는 미개최 위원회는 2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중지 필요성 등 검토 후 정비 또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근거 규정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하거나, 목적·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통폐합 근거를 마련해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난립 방지를

위한 사전(입안단계) 검토를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 같은 계획을 밝혔을 당시 도내 위원회는 기준 355개였지만, 정비를 추진한 지 5개월이 지난 11월에는 370개로 오히려 15개가 늘면서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각종 위원회는 관련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신설되고 있다”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각 위원회의 법령,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정비가) 이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문인관에서

“중독예방, 수면 위에서 논의할 때”

우리나라가 더는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언론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필자는 도의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 때마다 학생과 청소년들의 도박과 마약중독에 대한 문제가 심각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주변에서는 주변 당사자 외에는 마약과 도박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해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토쟁이·토사장’을 들은 적이 있는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토쟁이’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청소년, ‘토사장’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칭한다고 한다.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장래희망이 토쟁이, 토사장이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단순히 청소년들의



이 남 근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최근 언론을 통해 보면 제주 내 가정집으로 마약이 배달되고, 도내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여기에 청소년들은 ‘진통제, 살 빼는 약, 공부 잘 되는 약’ 등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실정도 나타난다. 마약유통은 불법도박과 유사하게 온라인을 통해 남녀노소에겐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약과 도박에 대한 정보는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통제없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런 유행정보는 SNS로 공유전파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해당 문제를 발견하기 쉽지 않고, 학교 및 보호자는 학생·청소년 생활교육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음주와 흡연에 대한 예방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인지 사회는 청소년 음주·흡연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주변을 살펴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도박과 마약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아직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교와 사회에서는 관련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마약과 도박은 음식에서 학생들이 피지고 있으며,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중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약·도박 중독에 대한 문제를 “쉬~쉬~”하는 시대는 지났다. 음주·흡연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생 약물 오남용 및 도박 중독에 대한 대책이 수면 위에서 논의돼야 하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실시할 때이다.

청소년 도박·마약중독 심각
당사자 외 위기의식 못느껴
중독 대책 논의 등 필요 시점

치기roman 못어 넘길수 있을까?
친구들과 무한경쟁하는 학업 스트레스를 인내하고 레저스포츠 등으로 해소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유혹하는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늘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스마트기기에 노출 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역시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분명 도박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스포츠 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법도박에 빠져들고 있다. 도박 문제에 부수적으로 채무관계, 학교폭력, 절도 등의 심각한 문제들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보호자라고 불리는 우리 어른들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

환경영향평가 사후 관리 도, 67곳 점검 후 시정 조치

제주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사후 관리 대상 사업장 67개소 점검하고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 시정을 완료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계획”에 따라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67개소를 점검한 결과 16개소 사업장이 이행조치 대상으로 확인돼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변경협의 등 절차이행 ▷침사지, 비점오염물질 등 시설 및 저감대책 ▷수질조사 협의내용 이행 ▷중빙 및 현황자료 제시 미흡 등이 적발됐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골프장 1건, 관광개발사업 5건, 기타사업 10건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항들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조례에 따라 시정이 이뤄졌다.

사후조사 분석 결과 2022년도 현장방문 점검대상은 67개소로 지난해에 비해 17% 증가했으며, 최근 3년 간 신규사업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미한 사항에 대한 권고 조치는 51개 사업장·121건으로 작년에 비해 권고건수가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르기자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통합보상제 ‘효과’

재활용품 회수량 42.4% 증가 투명페트병 매각 수입 5억원 ... 전년도에 비해 4.5배 늘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통합보상제가 재활용품 회수량이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통합보상제는 재활용도움센터에서 투명페트병, 건전지, 종이팩, 캔류 1kg을 10리터(L) 종량제 봉투 1장으로 교환해 주는 제도다.

또한 매주 일요일과 환경 기념일(지구の日 4월 22일, 환경의 날 6월 5일)에는 평상시의 2배를 보상하는 재활용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보상제는 분리배출 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고품질 재활용품에 대한 경제적 유인으로 별도 배출을 유도해 재활용률 및 분리배출에 대한 참여 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올해 통합보상제를 통한 재활용품 회수 실적을 보면, 1월 총 55.8t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통합보상제 시행에 따라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고 있다.

에서 10월 79.5t으로 4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투명페트병은 올해 1월 35.3t에서 10월 56.7t으로 60.6% 증가해 전체 회수량의 약 71%를 차지했다.

통합보상제 활성화 및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전면 시행으로 10월까지 투명페트병 매각 수입은 5억 4600만원으로 전년(1억2000만원) 대비 4.5배 증가했다.

올해 1월 재활용데이 보상기준이

1kg당 종량제 봉투 10매에서 2매로 변경되면서 2월에 회수량이 16% 감소했으나 5월 이후 투명페트병, 캔류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아울러 재활용품 회수 통합보상제 시행(2021년) 초에는 5400여명이 참여했으나, 올해 10월에는 3만 7000여명으로 급증하고 월 평균 2만 8000여명의 도민이 참여하는 등 도민들의 자원순환 참여 의지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태윤기자 lt9456@ihalla.com

2022 (사)제주식품산업협회 추계학술대회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제주식품산업 방향」 심포지엄

일시: 2022년 12월 16일(금) 14:00-18:00
장소: 제주 더원호텔 2층 연회장

주최: (사)제주식품산업협회, (재)제주한의약연구원
후원: (재) 제주특별자치도

시간	내용	발표자
14:00-14:30	등록	
【개회식】		
사회: 양태석 교수(제주국제대학교)		
14:30-15:00	개회사	김정현 회장 (사)제주식품산업협회
	축사	강연호 위원장 (재)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단체사진		
【심포지엄】		
좌장: 임종빈 교수(제주대학교)		
15:00-15:30	제 1 주제 Personalized Food Tech	이기원 교수 (서울대학교)
15:30-16:00	제 2 주제 미래 선진시대를 이끌 제주 식품산업	권대영 교수 (호서대학교)
16:00-16:10	휴식	
좌장: 최영진 교수(제주한라대학교)		
16:10-16:40	제 3 주제 제주식품기업의 지속가능 ESG 경영	김경찬 대표 (앤비씨파트너스)
16:40-17:10	제 4 주제 메카트랜드 활용한 고부가치 식품마케팅	서동순 본부장 (샘표식품)
17:10-17:20	휴식	
【종합토론】		
좌장: 오명철 교수(제주국제대학교)		
17:20-18:00	- 강연회 교수 (제주대학교)	
	- 김영선 대표 (제주농경 경농조합)	
	- 박지민 박사 (재)제주테크노파크)	
	- 고희철 박사 (재)제주한의약연구원)	

2022년 3차(75차) 제주평화통일포럼

대주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평화통일의 과제

○ 일시: 2022. 12. 16(금), 15:30
○ 장소: 제주썬호텔(제주시 삼무로 67)
○ 대상: 제주평화통일포럼 회원 등

시간	세부 내용
15:00-15:30	30' ○ 등록
15:30-15:40	10' ○ 개회식 - 국민의례 - 개회식 (김성수 부의장)
15:40-16:40	60' ○ 초청 강연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새로운 전략 목표" - 특강: 현인택(前 통일부 장관) - 사회: 고성준(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 - 질의 응답
16:40-16:50	10' ○ 휴식
16:50-18:10	80' ○ 통일대비 연구 "북한의 관광정책과 제주-양강 관광협력 모색" - 발제: 장성수(제주대학교 명예교수) - 사회: 김건일(한라일보 대표) - 토론: 김경찬(前 광주우총영사) 양성순(통일교육위원, 제주서동학교 교감) - 질의 응답
18:10-19:10	60' ○ 폐회 및 만찬

경희인의 밤

다음과 같이 2022년도 경희대학교 제주총동문회 송년 모임을 합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2년 12월 15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아젠티오오래 컨벤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112)

□ 참석대상: 경희대학교 및 경희대학원을 졸업한 모든 동문

□ 회비: 3만원

□ 문의처: 사무총장 김보균(010-2786-6734)

경희대학교 제주총동문회 회장 김태운

토 지 구합니다

· 제주시 ·

구좌읍 조천읍

조건

① 전원주택용 부지
② 허가득한 사업부지
③ 계획관리지역

베네건축 베네하우스

문의: ☎ 064-723-1105